

다산포럼



송혁기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730년, 금성 현감 이형곤(李衡坤)이 정자를 하나 지었다. 사방이 특 두여서 수십 리 경치를 한눈에 끌어 당겨 볼 수 있는 곳이다. 막힘 없이 볼 수 있다는 뜻에서 '달관정'(達觀亭)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조귀명(趙龜命)에게 기문(記文)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 조귀명은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는 데에서 눈지를 시작한다. 사방이 트인 정자에서도 문을 닫으면 눈으로는 가까이 있는 사물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자칫 사물밖에 없다고 해서

달관이란 매인 데 없이 자연에 응거하는 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현감으로서 공무에 바쁜 이형곤이 내세울 말이 못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정적이고 한기한 때에만 그러할 뿐 동적이고 바쁜 상황에는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는 상황이 매이는 것이니 달관이라 할 수 없다. 자연에 머무를 적에는 물고기나 새와 어울리며 느긋하게 즐거움을 누리고, 관아에 나와

밤 한 톨의 달관

서는 어려운 백성들의 호소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해야 달관이라 할 수 있다. 상황의 막힘과 통함에 구애되지 않고 복잡한 정치 현상이나 심지어 위험한 전쟁터에서도 간결함과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달관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마음으로 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1801년 어느 저녁, 산책하던 정약용(丁若鏞)이 우연히 한 어린아이를 보았다. 그 아이는 참새처럼 팔짝 팔짝 뛰며 배를 송곳으로 찔리거나 한 듯이 자지러지는 소리로 울어 대고 있었다. 왜 그러느냐고 묻자, 그 아이가 밤 한 톨을 주웠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빼앗아 가서 저렇게 울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약용은 이 이야기를 두 아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아아! 천하에 이 어린아이처럼 울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벼슬 잃은 자, 권세 잃은 자, 재산 잃은 자 역시 달관한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밤 한 톨 잃은 아이와 뭐가 다르겠는가?"

내가 잃은 것이 밤 한 톨과 다를 바 없다는 달관의 시선이 과연 우리에게 위안이 될까? 정약용이 이 이야기를 한 맥락은 다른 데에 있었다. 형체가 있는 재물은 미꾸라지와 같아서 단단히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미끄럽게 빠져나갈 뿐이다. 재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쓰는 재물은 유형의 물질이고 남에게 배부른 재물은 무형의 마음이다. 물질은 항락과 함께 망가지고 없어지지만, 마음은 변치도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가진 재물은 도난과 화재를 늘 걱정해야 하지만, 남과 나눈 재물은 아무런 염

려도 없이 좋은 이름으로 영원히 남는다. 이런 관점의 전환 위에서 비로소 밤 한 톨의 달관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만사에 초탈한 듯 보이는 이에게 '달관'이라는 칭호를 붙이곤 한다. 그런데 인생의 진리를 꿰뚫어 보는 식견을 갖추어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차원에 오른 이를 존경스럽게 가리키기보다는, 대책 없이 무심하고 의욕이 없는 이를 다소 폄하하는 어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절망적인 미래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저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것들에 만족하며 사는 일본의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사토리(ととり) 세대'를 '달관 세대'로 옳긴 예도 있다. 하지만 회피와 포기마저 허용될 수 없을 만큼 냉혹한 현실 앞에서 달관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커서 달관이라는 말을 사용하기조차 조심스러워진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은 올해 연말이지만, 인적 드문 거리에 구세군 자선냄비마저 쓸쓸해 보이는 초유의 비집축 시대를 살고 있다. 떠나없이 힘겹고 불안한 상황. 모든 이슈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양분되는 광포한 흐름 가운데, 근근이 이어 온 삶의 끈을 놓아 버리는 이들의 소식이 안타깝게 들려온다.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달관이란 우리와는 너무도 먼 이야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재물은 나누어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역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마음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믿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달관은 밤 한 톨처럼 작은 관점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기고



김삼호
광산구청장

바야흐로 종말의 시대다. 많은 것들이 종말을 고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의 분석처럼 중산계급, 신자유주의, 구미 패권 등이 무너지고 있다. 인간에 의한 제6차 대멸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자연환경이 오염되며 서식지를 잃은 동물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러스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며 지구는 더 병들어가고 있다.

본말야야 할 민주주의의 표상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시민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일삼는 모습은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반면 잘 버티고 이겨내 온 우리 국민은 자신감을 얻었다. 일 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무력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으나, 그 와중에 마음의 위안이 되었던 것이 우리 국민의 성숙한 의식이었다.

광산구에서는 코로나 발생 초기 마스크가 부족하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제작해 나누고, 방역단

'민주주의 가치'를 생각하다

을 조직해 골목과 상가 소독에 나서는 등 빛나는 시민 의식을 발휘했다. 공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7일 도심 속 습지로는 처음 국가 습지로 지정된 광산구 장죽습지가 그것이다.

장죽습지의 국가 습지 지정은 행정의 여유와 유연성을 보여준 사례다. 문제가 불거졌던 초기 지역민과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모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갈등 관리 전문가에게 진행을 맡기고,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한 설명회와 주민 간담회를 1년 동안 20여 차례 개최했다.

그 결과 정보 제공형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 85.8%를 얻었다. 습지 지정 찬성으로 결론이 난 이후 1년은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결과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결국 갈등이 표면화된 지 1년 만에 해결하고, 만 2년 만에 국가 습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점을 쉬쉬하기보다 드러내고 시민들이 의심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 공감증을 갖는 부분을 구체화하고 하나씩 풀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경계한 것이 성급함과 일방주의였다.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지 말자' '행정을 위한 일방주의를 조심하자'는 최소한의 원칙만 두고 차분히 풀어 가고자 한 것이 오히려 빠른 결론에 도달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도 주민이 반대하면 반쪽짜리라고 불과하다.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모두 광산구민'이라는 점을 항상 유념했다.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갖고, 상호 신뢰 속에 해법을 찾기 위해 의회, 공직자, 관계 기관 전문가와 함께 노력했다. 덕분에 모두의 축하 속에 국가 습지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뤄 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많은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의 경우에서 옳다는 생각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라고 한다. 정책 결정자로서 내 의견이 또는 다수의 의견이 정당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행정은 결단을 내리는 순간까지 다양한 의견을 섬세하게 청취하되, 주도적으로 전략을 짜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평등과 예의, 자유와 공동선에 대해 공유한 인식이 민주주의의 가치, 혹은 민주주의의 정신이었다.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가치가 어디까지 무너질까 염려되는 마음도 있다. 새해를 앞두고 예고되는 대전환 시대에 자치 행정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상상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요즘이다.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준비해야 한다.

기고



김영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코로나19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감염병 팬데믹(대유행) 앞에서 인류의 일상과 세계 경제는 풍전등화이며, 근본적인 국제 질서마저 바꾸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른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뉴노멀(New Normal)이란 급격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표준(Normal)을 뜻하며, 코로나 이후 세상을 특징 짓는 경제·사회 현상을 말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표준으로 '디지털'(Digital)과 '친환경'(Green), '지방화'(Local)를 내걸었다.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첨단 디지털 사회로 전환 중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Untact)이 디지털 일상을 앞당겼을 뿐이다. 이제는 화상 교육, 재택근무, 온라인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뉴노멀 시대, 지역사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이 야생동물 서식지의 파괴와 밀렵 과정에서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환경적인 삶에 대한 실천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인류가 기후 위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지방이 주도해야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 탈피해 지방분권적 국가로의 전환을 뉴노멀에 포함하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손꼽았다. 획기적인 주민 주권 구현과 자치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도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은 지방 차원에서 뉴노멀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최근의 상황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앞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코로나 대처에서부터 지역 현안 사업 해결, 초광역 사업 추진 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대응 역량이 아쉽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역사회의 핵심 주체인 시민, 리더, 조직이 삼위일체가 되어 뉴노멀 시대 준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선, 지역사회의 주인인 시민의 역량부터 키워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 약자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민 스스로 공부하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 또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폐를 시민의 힘으로 청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의 파수꾼이 되어

매관매직이나 매표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잘못된 개발과 과도한 정책을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동시에 조직의 리더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 한다. 특히 외지에서 온 유능한 전문가와 이주민을 환대하고 상상해야 한다. 배타심과 소지역주의는 뉴노멀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과 중앙에서 활동하는 지역 출신 리더들은 지역 균형 뉴딜을 선도할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우리 지역의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혜안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끌어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보여 주기식 행정과 공허한 레토릭만 늘어놓는 정치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주도하는 참신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른바 '행정의 달인' '진짜 굵은 정치인' '○○전문가'라는 구태의연한 리더보다는 유연한 사고방식과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리더가 뉴노멀 시대의 바람직한 지도자상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공공 분야든 민간 분야든 조직은 변화무쌍한 외부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지역 내 공공기관, 산업체, 교육기관의 혁신 속도는 지금보다 빨라야 하고,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경영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또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와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직의 가치와 철학을 비전으로 확립하는 일이다.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력 중심으로 조직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이유다.

社說

페트병 분리배출 '정책 따로 현장 따로' 여서야

대규모 아파트에서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페(廢)페트병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광주 지역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드문 것 같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의무 적용 대상은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150~299가구라도 열라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 무색의 투명 페트병을 별도의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광주일보 취재팀의 현장 확인 결과 광주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체감하기 어려웠다. 쌍촌동 인근 8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투명 페트병을 분리수거할 공간을 별

도로 마련해 놓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 또한 분리배출 시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해 압착한 뒤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는 주민들도 별로 없었다.

다육이 환경부가 분리배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용 포대 5만여 장을 배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장에서 단 한 장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정책은 국내에서 나오는 페트병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각하고 해외에서 이를 수입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올해 중국 등에서 수입된 페페트병은 7.8만에 달하는데 정책이 제대로만 정착되면 재활용을 높여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책 따로 현장 따로' 움직인다면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그리고 지자체는 애써 마련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분리수거 체계 구축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종교 시설 코로나 확산... 교회 협조 절실하다

종교시설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특히 새해 1월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강도 높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9일 14명을 시작으로 일주일 넘게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 에버그린실버하우스(요양원)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북구 진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에 이어 입원 환자까지 감염돼 해당 병원의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되기도 했다. 이들은 50여 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에버그린 요양원발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청사교회 관련 확진자도 30명 이상 발생했다. 확진자는 대부분 이 교회 교인인데 지난 20일과 23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한다. 문제는 조사 결과 이 교회

목사가 예배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20일 예배 이후에 교인들과 식사도 함께 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 측은 예배 참석자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다니 한심한 일이다. 광산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회 대표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청사교회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시설 폐쇄와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모두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피해로 한숨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일부 종교 시설에서 예배를 강행하고 더욱이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 시설 또한 '잠시 멈춤'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더 이상 지역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無等鼓

한 해의 끝 무렵을 '세밀' 혹은 '세모'(歲暮)라고 한다. 예년 같으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으로 부산할 터이다. 그런데 올해는 이전과는 너무 다르다.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난 해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손바닥만 한 크기의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살얼음판을 건너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12월 들어서는 코로나19 제 3차 대유행 상황을 맞고 있다. 방역 당국의 분위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하루 1000명대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전염력이 한층 강해진 영

국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28일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돼 긴장이 고조된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인 문묘한 작가는 최근 다. '예향'과 가진 e메일 인터뷰에서 이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이는 코로나에 대한 공포, 경제적 고통, 사회적 격리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무엇보다 '불확실

성'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혹시 다른 변이체가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백신이 효과적일지 등 도무지 앞으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을 길러 나가는 것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일 것"이라며 '심리적 유연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우연히 백석(1912~1995) 시집을 들춰 보다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시구에 눈길이었다. 바위 옆에 홀로 서서 세한(歲寒-매우 심한 한겨울의 추위)을 견디는 갈매나무에 감정을 이입하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세밀의 답답함을 날려 본다. "–어니(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홀로 서서, / 어드워 오는 데 하이아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 쌀랑쌀랑 소리로 나며 눈을 맞을, / 그 드물다는 곧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